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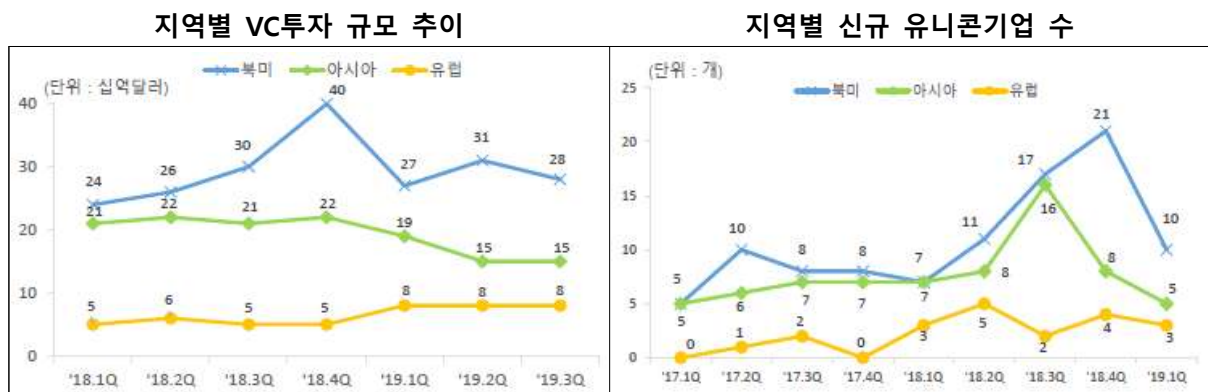
유럽의 벤처 생태계 동향 및 시사점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
서대훈 (kdb14@kdb.co.kr)

- ◆ 유럽의 VC투자 규모는 북미·아시아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, 특히 성장·후기 단계의 투자금액 부족은 신규 유니콘기업의 출현 저해
 - 성장·후기단계 기업당 평균 투자규모: 아시아(94.1백만달러), 북미(52.3백만달러), 유럽(28.9백만달러)
- ◆ 독일의 경우 성장단계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자금이 부족하여 투자자금 대형화를 위한 다양한 제안 제시
 - 공학한림원, KfW, 증권거래소는 공동연구를 통해 기관투자자의 투자 규제 완화, 정부지원 펀드 운용규모 확장, 유통시장을 포함하는 공동투자플랫폼 도입 등을 제안
- ◆ 우리나라도 유니콘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투자자들이 공동투자 할 수 있는 시장 조성, 정부 조성·지원펀드의 운용규모 확대 등을 통한 투자규모의 대형화 등 스케일업 금융지원 강화 필요

□ 유럽은 북미 및 아시아 지역에 비해 VC투자 규모가 작고 신규 유니콘기업의 출현이 상대적으로 저조

- 유럽의 VC투자 규모 및 신규 유니콘기업의 수는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, 북미나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 비해 열위한 수준 지속
 - '19년 1~3분기 평균 투자규모는 북미 28.7백만달러, 아시아 16.3백만달러인 반면, 유럽은 8.0백만달러에 불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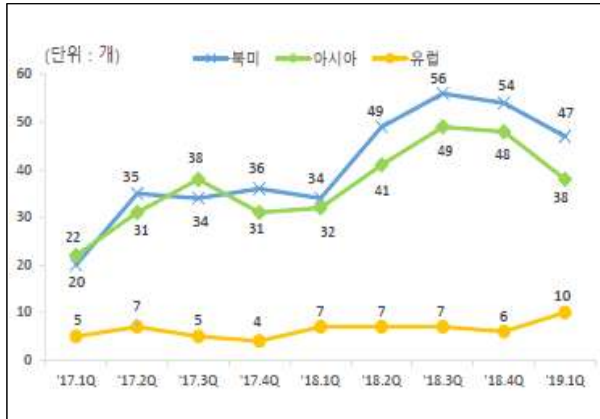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PWC/CB Insights(2019), "MoneyTree Report Q3 2019" 자료 : PWC/CB Insights(2019), "MoneyTree Report Q1 2019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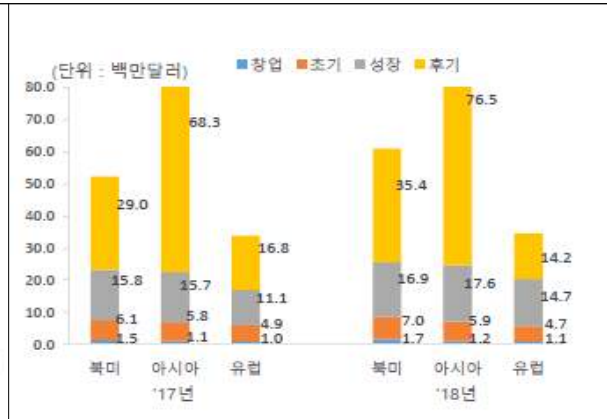
- 유럽에서 유니콘기업의 출현이 저조한 이유는 전체적인 VC투자 규모가 작고 대규모 투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 미흡한 것과도 관련
 - 1억달러 이상을 모집하는 메가라운드의 연평균 개최횟수는 '18년 기준 북미 48.3회, 아시아 42.5회, 유럽 6.8회 순

- '18년 기준 성장·후기단계의 기업당 평균 투자규모는 아시아 94.1백만달러, 북미 52.3백만달러, 유럽 28.9백만달러 순

메가라운드 개최 건수



지역별 기업당 평균 투자규모



자료 : PWC/CB Insights(2019), "MoneyTree Report Q1 2019" 주 : 분기별로 발표된 중앙값을 평균한 것이며, 성장단계별로 구분 표시
 자료 : PWC/CB Insights(2019), "MoneyTree Report Q1 2019" 재가공

□ 동일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독일*도 공학한림원, KfW, 증권거래소가 스케일업 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자금조달 기반의 개선,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 도입 등을 제안**

- * 공학한림원, KfW 및 증권거래소가 성장기업, 학계 및 투자자 등과 같이 현상황에 대한 분석 및 관련 업계와 정부와 제안 사항에 대해 논의
- ** Acatech-KfW-Deutsche Börse(2019.9), "Enhancing innovation in Germany by strengthening the growth finance ecosystem"

○ 독일은 초기단계 기업을 지원하는 펀드 조성으로 창업·초기단계의 조달여건은 개선되었으나, 성장단계의 기업을 지원하는 투자자금이 부족한 상황

- 독일의 VC펀드 규모는 3억~3.5억유로 수준을 초과하지 않아 대규모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

* 미국 및 중국은 독일대비 9배정도 큰 펀드도 존재하여 대규모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가능

○ 기존 자금조달 기반 개선을 위해 자본규제 완화, 지원규모 확대 방안 등을 제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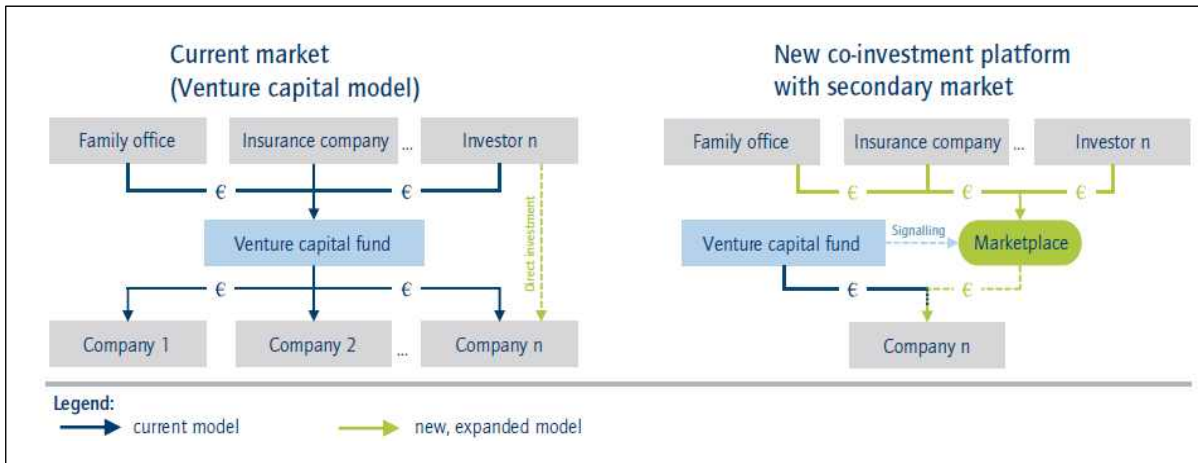
- 국내 자본을 유인하기 위해 기관투자자(은행, 보험회사 등)의 VC투자시 완충자본을 확보해야 하는 규제 등에 대한 완화
- KfW Capital의 펀드투자*와 같은 정부 지원정책의 경우 투자규모 확대
- KfW와 EIB가 제공중인 Venture Debt**와 같은 형태의 자금공급 증가
- 유럽 연기금들(자산규모 약 7조유로)을 활용하여 스케일업 생태계 강화

* 현재 KfW Capital(KfW의 자회사)은 펀드당 최대 2,500만유로 투자가능

** VC투자를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고 후속 VC투자 금액을 상환재원으로 활용

-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으로 유통시장 기능을 포함하는 공동투자플랫폼 구축 제안
 - 기존의 VC투자 모델은 빠른 매각을 통해 수익을 획득하려는 투자자와 장기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과의 미스매치 발생
 - 공동투자플랫폼은 비상장기업의 지분을 자유롭게 취득·처분할 수 있는 유통시장을 조성하여 자금의 유동성을 높이는 동시에, VC의 투자정보를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투자자들이 VC와 함께 직접투자가 가능해져 대규모 투자자금 조성 가능

기본 VC모델과 새로운 공동투자플랫폼 비교



자료 : Acatech-KfW-Deutsche Börse(2019.9), "Enhancing innovation in Germany by strengthening the growth finance ecosystem"

□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유니콘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자금조달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개별기업에 대한 투자규모의 대형화 모색 필요

- 정부가 조성·지원하는 펀드의 운용규모 확대, VC의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다양한 투자자들이 VC와 공동투자를 할 수 있는 시장 조성 등 다양한 투자자금 유인 정책 필요
 - '18년 민관합동으로 조성한 성장지원펀드의 경우 펀드당 최대 3,000억원 한도로 운용규모가 제한되어 있어,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구성에 한계 존재